

세계 최초 PKI 기반 무선 공인인증서비스 실시

한국정보인증(주)



“국내 최고의 PKI보안 기술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공인인증 전문 기업인 한국정보인증(주)를 만나본다.



한국정보인증(대표이사 강영철 <http://www.signgate.com>)은 공인인증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무선관리사업단, KT, SK텔레콤, 삼성SDS, LG전자, 한국정보통신, 다우기술 등 22개 기업이 공동 출자해 1999년 7월에 설립된 기업으로 2000년 2월 10일 국내 제1호 국가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공인인증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는 한국정보인증은 전자서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모두 갖추고 공인인증 사업의 필수 요소인 PKI보안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국가 공공기관의 주요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정보인증은 정부 조달청의 전자조달입찰에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및 국방조달본부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인터넷뱅킹 부분에서는 우체국금융에 PKI보안을 적용한 공인인증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KT, 한국전력, 가스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의 주요 공공기업을 등록기관(RA)으로 두고, 국내 최대 규모의 법인대상 공인인증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정보인증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비스로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약, 전자구매, 전자입찰, 전자세무신고, 인터넷보험가입, 인터넷 주주총회, 사이버대학, 통합 민원행정서비스, 인터넷뱅킹, 사이버트레이딩, 인터넷빌링 및 지불결제, 의료EDI, 보안 이메일 등이 있으며, 인터넷상에서의 전자거래에 대한 안전성을 기술력과 함께 법적으로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PKI보안 이외에도 SSL보안이 적용되는 웹서버인증서를 공급하고 있는 한국정보인증은 웹서버인증서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공인인증서와 연계해 국내 최초 법적 SSL보안에 대한 사고 책임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고객사들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PKI기반의 무선공인인증서비스를 실시하게 된 한국정보인증은 공인인증 서비스에 대한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검증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무선공인인증 서비스는 휴대폰 단말기에 무선PKI 보안모듈이 장착된 상태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전세계를 통해 정부적 차원에서의 공인인증서비스를 한국정보인증이 세계 최초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무선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해 공인인증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기에 휴대폰을 이용한 무선인터넷 거래 및 결제시, 거래 내용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인터넷상에서의 인감증명서와 똑같은 역할을 하기에 무선인터넷상에서의 거래 및 결제시 본인 확인 및 데이터 송수신 보안, 부인방지,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 기능을 지원한다.

무선공인인증 서비스 세계 최초 실시

한국정보인증이 실시하는 무선공인인증 서비스는 우선적으로 이동통신사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안전한 전자거래 및 무선 전자정부 구현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국내 3000여만명의 휴대폰 가입자들이 무선인터넷으로 인터넷뱅킹, 주식거래, 각종 예약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형오 의원이 방문하여 관심과 격려를 보였다.

및 티켓팅 등 본인확인 및 무선데이터 보호를 통한 안전한 전자거래를 할 수 있게 됐으며, 나아가 기업과 정부의 무선결제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이나 정부기관의 경우 PDA를 이용한 무선 전자결제에 이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우체국의 PDA를 이용한 우편업무에도 곧바로 적용이 가능해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된 무선공인인증 서비스는 국내 이동통신사들 중 LG텔레콤이 가장 먼저 정보통신부 심사를 통과했으며, LG텔레콤은 한국정보인증으로부터 무선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자사의 무선공인인증 가입자들에게 세계 이동통신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LG텔레콤은 상용서비스 준비 기간을 거쳐 곧바로 가입자의 안전한 무선인터넷 사용을 위한 무선공인인증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 KTF와 SK텔레콤도 곧 무선공인인증 서비스 심사를 통과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무선공인인증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무선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동통신사들의 대리점을 통해 무선PKI 모듈이 장착된 휴대폰 단말기를 가지고 휴대폰 개통과 동시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이동통신사들이 등록기관(RA)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때 신원확인도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첨부한 상태에서 철저한 본인확인이 이뤄지게 된다.

무선공인인증 서비스가 실시되면 휴대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휴대폰으로 계좌이체, 잔고확인, 주식거래 결제 등을 실시할 수 있어 국민들이 지금의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뱅킹보다 더욱 편리하게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된다.

한국정보인증이 공급하고 있는 SSL보안 적용의 웹서버인증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가공인인증서로 사용되고 있으며, 40비트(bit)에서 128비트(bit)까지 사용자 환경에 맞춰 자동적으로 설정되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또한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SSL보안

기능도 탁월하며, 가격도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공급형으로 많은 전자상거래 업체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국내 보안기업의 대표적 주자인 한국정보인증은 공인인증 서비스 외에도 부가서비스로 PKI보안기반의 XML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미 기술적으로



▲ 한국정보인증은 국내 여러 보안업체들과도 경쟁관계 보다는 제휴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인증받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태다. 한국정보인증은 4월경에 본격적으로 XML서비스 실시할 예정이며, 조만간 PKI보안 인증이 첨부된 또 다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한국정보인증은 홍콩포스트(POST)와 싱가포르의 ID.Safe, 말레이시아 디지서트(Digicert), 중국 상하이CA, 광동CA와 사업적 제휴를 맺고 있으며, 아시아PKI포럼의 비즈니스워킹그룹 의장사로 아시아지역의 PKI보안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 및 아시아 국가들과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정보인증은 국내 보안 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아시아진출 창구역할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곧 한국PKI포럼의 사업분과위원회를 통해 실현시킬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기술인프라 앞세워 해외시장 개척 나서

이미 올해 사업계획에서 밝혔듯이 공인인증사업을 중심으로 한 솔루션사업도 금년도 한국정보인증의

주요 사업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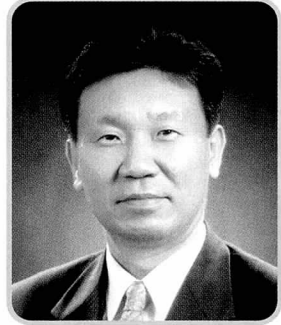
한국정보인증은 PKI기반의 전자세금계산서 통합 관리 솔루션을 정비하고 이미 본격적인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사업을 전개 중이다. 또한 기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제청 표준양식에 맞춰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구축중인 국제청 시스템에 연동시킬 준비를 거의 완료한 상태이다.

SignGATE EWS(Easy Web Security)솔루션은 설치 및 환경설정만으로 웹기반의 전자상거래시스템에서 거래 정보의 보안을 필요한 기능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획기적인 웹보안솔루션으로 전자상거래업체에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보안의 대중성을 겨냥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한국정보인증은 이외에도 e-비즈니스의 특징인 상호 윈(WIN)-윈(WIN)전략아래 PKI보안 인증 기반의 기술을 적용한 응용모델을 각 제휴사들과 개발하고 있으며, 곧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제품들을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 중 전자사인을 이용한 인증서비스, PKI보안기반의 네트워크백업서비스, 지문인식 인증 서비스는 4월중에 제품을 시장에 선보일 계획 아래 마지막 손질을 가다듬고 있는 중이다.

공인인증사업을 주력으로 PKI보안기술을 적용한 응용솔루션으로 국내 인증시장 개척을 주도하겠다는 경영계획 아래 각 인증분야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한국정보인증은 국내 보안시장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기반적 원초기술을 착실히 다져 왔다. 국내 기술 선두 기업과 기술을 포함한 사업전략적 제휴를 통해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한국정보인증은 자체 보유한 가장 앞선 기술과 공동협력을 통해 파트너십을 통한 공동사업으로 보안시장을 주도할 계획이다.



대표이사
강 영 철(姜永哲)

“올해는 한국정보인증이 국내를 뛰어넘어 국제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원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정보인증 강영철 사장은 이렇게 자신의 경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한국정보인증은 지난 1999년에 설립되어 2000년 2월에 국내 제1호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공인인증 전문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에서부터 모든 시설이 국가 지정시설 규모에 맞춰 구축되어 있으며, 연구진의 기술력 또한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문 공인인증 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인 만큼 공인인증에 사용되는 PKI보안 기술은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는 강사장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 순수 주식회사인 만큼 기업경영 원칙인 수익구조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서명의 확산을 촉진하고 국내 보안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 국내에 나와 있는 여러 기업들의 보안제품과 크게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인증서 기반의 보안기술을 응용한 신규 보안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오히려 해외 진출용으로 더욱 활용할 생각입니다.”

큰 규모의 보안기업에 해당하는 한국정보인증은 국내 보안시장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국내시장에서는 기존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는 보안업체들과 경쟁관계보다는 제휴관계를 유지하며 시장을 유지해 나가고, 다양한 응용분야의 신제품을 만들어 보안시장의 새 영역 개척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공인인증서 사용의 확산과 사회적 정착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정보통신부도 올해 공인인증서 1000만명 사용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공인인증서 사용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저희들의 주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사장은 공인인증제도의 확산을 추구하고 정보통신부의 정책과 함께 호흡해나가는 것이 현재 공인인증기관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이와함께 신규사업 모델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정보인증은 공인인증기관이면서도 주식회사입니다. 그렇기에 주주들의 기대욕구에 부응하는 것도 한국정보인증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수익을 창출해 주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정보인증은 주주들이 투자한 것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곧 현실화되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사장은 한국정보인증도 주식회사이기에 이익창출과 주주들에 대한 기대도 반드시 부응해야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보인증이 지금까지 사업을 위한 내부 정비기간이었다면 이제는 대외적인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활동기라고 볼 수 있다.

국내 보안기업 중 침묵을 지키고 있던 거대 보안기업 한국정보인증의 활동에 국내 보안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안업계에서의 강사장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